

# 천연의 대성전 北漢山

任重彬

먼 발치로 북한산 능선을 매일같이 바라다 본다. 백운대·만경봉·용암봉 사이에서 태양이 솟아 오르는 여름철이면 아침은 더욱 신성하기만 하다.

백두산이 국토의 뿌리가 되는 성산(聖山)이라면 북한산은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현산(賢山)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다지 넓은 강역이 아닌 한반도이기는 하지만 산악으로서 성현을 아울러 우리르며 오르내릴 수 있는 특권이란 민족의 크나큰 영광이자 긍지가 아니고 무엇이랴.

북한산의 운치는 언제든지 만인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산색으로 일종의 신앙이 샘솟게 하고, 약수 맛이나 계류의 해맑은 물 소리 속에 여신의 체취마저 감돈다.

일찍이 존 리스킨은 산악을 예찬하는 글에서 “산은 대지에 솟은 자연의 대가람으로 사람의 시선을 하늘 높이 끌어올리고 사람에게 숭고의 관념을 알게 한다.” 고 설파하였다.

북한산은 수도권에 솟은 천연의 대성전 아님이 없고 철 따라 봄이면 관유(寬裕), 여름이면 충만(充滿), 가을이면 미려(美麗), 겨울에는 숭엄(崇嚴)의 특성을 지닌 생명의 축제를 쉬임없이 올리는 듯하다. 늘 새로운 꿈을 키워 주면서 본분을 지키며 살도록 대자연의 생명현상에 눈뜨게 하고, 마침내 마음의 큰 귀를 열어 준다.

봄철 얼음이 녹아 내리는 너그러운 품에서 꽃들을 피워내는 진경, 여름철 신록은 우거져 산기슭마다 숲그늘로 가득차는데다 옥류의 물소리 또한 승경의 운치를 더한다. 가을철 만산홍엽(滿山紅葉)의 미려한 자태는 눈부신 절경을 이루며, 겨울철 눈바람 세차게 휘몰아치는 숭엄한 비경 속에 얼음꽃도 피우면서 북한산은 좁처럼 미소를 거둘 줄 모른다.

북한산은 이미 나에겐 떠나 살지 못할 생활공간이 되어버렸고 백운대 정상은 어찌면 마음의 드높은 지표와 늘 맞닿아 있다.

삼각산을 비롯한 높고 낮은 산봉우리 28봉이

어깨동무하듯 솟은 산이 북한산이다. 뿔부리마다 기암 묘봉의 개성이 절정을 이룬다. 단순히 서울의 진산(鎭山)이라기 보다 북한산 전역이 생동하는 영봉의 자태가 여실할 뿐만 아니라 북한산성의 견고한 성곽과 여기저기 계곡마다에 널려 있는 문화재들은 고적 박물관을 이루는데다 싱그런 정서 함양의 요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것이다.

내가 즐겨찾는 백운대 정상에서 한 달음에 위문으로 내려와 용암문·대동문·보국문을 거쳐 대성문이나 대남문에 이르는 북한산 중주길은 物我一體라 할까 자연과 일체화되고, 심신의 건강을 너끈히 보장해 주는 생명선이다.

백운대에서 대성문이나 대남문으로 뻗어내린 북한산 주능선 산행로는 이렇다 할 부담감 없이 손쉽게 언제나 들어설 수 있어서 좋다. 산행 인파가 밀려들 때면 시간을 앞당기면 된다. 이 구간은 쉬지 않고 꾸준히 걷기를 계속 할 때 하행은 한 시간이나 시간 반, 상행은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이면 너끈하다. 하기가 돈오돈수(頓悟頓修)가 산행의 요체이자 묘약일 수도 있다. 속보 아닌 느린 걸음일수록 생각하는 깊이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의 祖宗이 백두산이라면 조국 산하의 중심은 북한산과 한강으로 굳어져 온 우리의 전통적인 자연 인식 체계가 있다.

실학사상가 중에서 첫 우두머리로 추앙받는 성호(星湖) 이익(李瀾)은 그의 「성호사설」에서 “우리나라의 산맥은 백두산에서 일어나 중간에 태백산으로 솟아나고 지리산으로 내려와 그 줄기가 그쳐 있다.” 고 공언하면서 백두산으로 비롯되는 지맥(地脈)의 체계를 일반화시켜 나갔다.

뿐만 아니라 왕조의 도성이 자리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산수 체계를 전개하고 있다.

가령 「성호사설」의 천지문편 속에있는 ‘한도(漢都)’란을 보면 철저히 서울 중심의 자연

관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한강은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네 고을을 거쳐 서역수로 흐르다가 소양강과 두미에서 합수(合水)하고 삼각산을 둘러서 서해로 흘러든다. 이제 한강 남쪽의 여러 산맥은 속리산에서 뻗어나와 모두 서울로 머리 숙여 조회한다.

서울의 산맥은 남으로 뻗어 나온 큰 줄기가 철령에서 나뉘고 그 남쪽 가닥이 금강산과 오대산을 거쳐 태백산·소백산에 이르러 다시 한강 남쪽으로 뻗어 올라가 바닷가에 그치고, 산맥이 또 바다를 건너 강도(江都)를 둘러 감싸게 되어 있어 범위가 크고 꼭 짜여 지닌 기운이 긴밀하기로 남은 힘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참으로 만세 제왕의 기지요, 술가(術家)에서 이르는 바 “오덕구(五德丘)이고 보면 어찌 하늘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남방의 여러 산맥들이 서울로 머리 숙여 있다가 만세 제왕의 기지로 하늘에서 만들어진 산맥의 구조라고까지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명산을 중심으로 산줄기를 정리한 책으로 「산경표(山經表)」가 있는데 그 내용인즉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백두대간(百頭大幹)과 장백정간(長白正幹)에 이어 13개의 정맥(正脈)으로 한국의 산줄기가 분류된다.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는 한북정맥(漢北正脈)으로 되어 있다. 백두대간의 분수령에서 시작하여 강원도 금화 경기도 포천의 운악산, 양주 흥북산에서 도봉산·삼가산·노고산을 거쳐 고양 견달산, 교하 장명산에 이르는 서남으로 뻗은 한강 북쪽 줄기의 산들을 일컫는다.

백두대간 한북정맥의 유서 깊은 삼각산을 포함한 북한산 일대에는 백제 개루왕 5년인 서기 132년에 산성이 축조되었다. 백제 시조 온조왕이 한강 연안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지 114년 만의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1862년 전 아득한 옛날의 일이다. 그로부터 250여년이 지난 침류왕 원년 384년 중국 진(晉)나라에서 마라난타가 불교를 백제에 처음으로 전범하고 이듬해 한산(漢山)에 불교 사찰을 세운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북한산 기슭에는 그때부터 절이 들어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과 90년 뒤 고구려 장수왕의 남방 공략에 밀려 백제는 금강 연안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국력의 쇠퇴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63년 뒤 부여로 옮겨 끝내 몰락을 자초한다.

북한산성은 삼국시대 영토 쟁탈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북방공략 때 백제 개루왕이 쌓은 이 산성은 고구려 장수왕의 포위로 함락되어 북한산주가 되었고, 뒤에 신라의 국력이 팽창하여 서울에 진출함으로써 진흥왕은 순수비를 세운다.

557년 진흥왕이 북한산주를 설치하고 관내 순시차 북한산을 돌아보는 길에 순수비를 세운 것이 승가사가 자리잡고 있는 비봉의 내력이다.

북한산이 우뚝 솟은 한북정맥은 이처럼 국권의 심장부 그 성채로 역사적인 자리를 잡아왔다.

한편 고려 때 남경이던 한양(漢陽)이 조선왕조에 들어와 왕도로 자리잡은 뒤 선조 때 임진왜란을 겪고나서 1636년 병자호란으로 청 태종 앞에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란의 적소와 별궁터로 북한산은 중요시 되었다.

특히 북벌대업을 획책하던 효종은 송시열(宋時烈)로 하여금 1659년 산성을 수축하고 전란 때 국왕이 머무는 곳으로 하여 도성의 근본을 견고케 하라는 하교를 내려 축성을 논의하던 중 승하하여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본격적인 대규모 축성은 숙종조 1711년 4월 3일부터 6개월 보름 남짓 만인 10월 19일 북한산 연봉 끝 백운대 만경대 용암봉 문수봉 의상봉 원효봉 영취봉을 연결하는 약 10킬로 구간 거리 석성의 완공을 보았다.

성곽 축조 당시 3군문 곧 훈련도감과 금위영 그리고 어영청에서 수문, 북문, 서암문, 백운봉암문, 용암문, 소동문, 동암문, 대동문, 소남문, 청수동 암문, 부왕동 암문, 가사당 암문, 대서문 등 13개의 문을 완성하였고, 1714년 성내에 중성(重城)을 축조할 때 중성문을 비롯하여 시구문·수문 등 3개의 문을 추가로 수축하여 북한산성의 문은 본래 16개나 되었다.

정도 6백년에 즈음한 성곽과 문루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특별시는 대남문으로부터 대성문과 대동문을 차례로 복원하고 숙종(肅宗)

어필 집자(集字)의 현판을 문마다 달아놓아 고아한 정취를 자아내게 하였다.

오늘날 북한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문으로 남아 있는 유물은 대서문으로부터 시계 바늘 방향으로 서암문(시구문)·북문·위문·용암문·대동문·보국문·대성문·대남문에 청수동 암문과 부왕동 암문(원각문) 그리고 가사당 암문(국령문)등 12성문인데 이 중 원각문은 소남문으로 간판해 놓고 있다.

이들 열 두 성문에 중성문을 합해야 13성문의 전모가 드러난다.

대서문 위 백운대 가는 길과 갈리는 금북장 옆 청류가 옥같이 부서지는 계곡을 끼고 오르다가 노적사와 태고사에 들어서는 입구에 중성문이 있음을 본다.

이들 13문 가운데 적어도 한꺼번에 6·7문 정도는 통과하는 산행이라야 북한산 산행다운 등반이라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떨런지……

북한산은 화산(華山)·화악(華嶽)·한산(漢山) 삼각산(三角山)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름을 거느린다. 특히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삼각산 칭송이 이만저만 아니다.

“삼각산은 곧 왕경(王京)의 진산으로 허리에 지세가 가장 높고, 왕궁은 그 산 허리에 있다. 그 산마루를 돌아보면 여러 높은 산들은 마치 툽니와 같다. 높디높은 삼각산은 푸르고 푸른 소나무들로 덮여 있다. 경도(京都) 북으로 천인(千仞)의 형세를 벌여 놓았기에 어찌 천군(千軍)만을 누를 뿐이라”한 것이다.

시내 한복판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가장 낮은 보현봉은 도봉산 정상보다 조금 낮은 표고 714미터이지만 암릉으로나 방어벽으로 철옹성 같기도 한 위용(偉容)이다.

삼각산과 보현봉만이 아니라 문수봉·의상봉·원효봉·영취봉·노적봉등 6·7백미터 이상의 암봉들마다 실루엣을 이루며 총립한 북한산 일대의 묘경이란 예술 작품으로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 수도에 북한산 같은 수려하고 장중한 병풍의 자연경관이 인접해 있는가 과연 조화의 신이 버르고 별리 만든 명산이며, 하

늘의 축복아래 산 자락마다 골짜기마다 천연(天然)의 크나큰 성전(聖殿)을 이룩해 놓았다.

국왕의 피난처로 이룩한 120여칸의 행궁과 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은 관성소와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3유영, 장수의 지휘 본부인 동장대·남장대·북장대 등 3장대, 군량 비축을 위한 산성안의 상창·중창·하창·호창과 대성문 밖 당춘대의 평창 등 5창이 북한산성 축성과 함께 또는 그 얼마뒤에 조성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승병 370명을 거느리며 성을 지키고자 13개 사찰이 신축되었고, 143개소에 이르는 병사들의 성랑, 식수용 우물 99개소와 연못 26개소 등 시설물이 1713년 가을 무렵 거의 완공을 보아 북한산성은 별궁 또는 이궁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중흥사에 승병 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도총섭이 주둔하게 했는데 그 부속 사찰인 태고사가 남아 있을 뿐이다. 태고사에는 보우(普雨) 스님의 부도와 목은(牧隱) 이색의 명문이 담긴 비가 보존되어 있다.

도성 방어를 위한 2중 3중의 북한산성 방어 진지는 1905년 을사5조약에 따른 군대 해산을 당하면서 마침내 국권이 침탈되어 수호가 어렵게 되었다. 병사와 승도가 흩어지면서 폐허로 방치되는 비운에 묻혀 버리고 만 것이다.

고려말의 시인 묵객들은 ‘공중에 높이 솟은 세 송이의 푸른 연꽃’(吳洵), ‘세 송이의 기이한 봉우리’, ‘장검 꽃힌 날카로운 모습’(李存吾)등으로 삼각산을 찬미해 마지 않았다.

태고의 빛이 서린 화강암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 북한산. 연꽃 송이처럼 탐스러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 북한산의 연봉들. 북한산은 정녕 겨레의 요람이요 심장이다.

▲ 필자소개

동아일보 신춘문예당선(평론)

文學評論家, 人物史家

현재 交通環境신문 主筆과 人物研究所

代表이며 定評있는 北漢山通